



[종합] 쏟아지는 보험 매출 눈독들이는 금융지주 'M&A 큰장' 06



Economy

↑ 코스피 2513.28 (+15.76)	↑ 코스닥 839.51 (+11.48)
↑ 금리 (미국 3년) 2.14 (+0.04)	↑ 환율 (원/달러) 1066.00 (+3.30) (8일)

| CES 2018 | 삼성 '퍼스트 룩 2018'

# 극장의 화질, TV에... CES 흔든 '스크린 혁명'



마이크로 LED 기술 적용 모듈러 TV '더 월' 첫 공개 베젤 완전히 없애 조립가능 연내 상용화해 일반 판매도

"TV는 사용자가 집안의 스크린에 기대하는 모든 요구를 담아 내 '일상 생활의 중심(The Center of Everyday Life)'이 돼야 합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한중희 사장은 7일(현지 시간) CES 2018 개막에 앞서 미국 라스베이거스 엔클레이브 컨벤션센터에서 '삼성 퍼스트 룩 2018' 행사를 열고, 이 같은 삼성 전자 미래 스크린 방향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8면>

한 사장은 "앞으로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다른 스마트 기기들과 간편하게 연결돼 일상생활에 가치를 더하는 스크린, 설치 공간이나 크기에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확장 가능한 스크린을 구현해 TV 이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146형 모듈러 TV '더 월'에 사용된 웨이퍼에 LED를 생산해 기판에 붙인 것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정은미 기자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146형 모듈러 TV '더 월(The Wall)'과 'AI 고화질 변환 기술'이 탑재된 85형 8K QLED TV를 공개하며, 세계 300여명의 취재진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된 146형 모듈러 TV 더 월은 삼성 전자 LED·반도체 기술과 대만의 마이크로 LED 업체인 플레이나이트라이드사의 기술력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더 월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LED를 이용해 백라이트는 물론 컬러필터까지 없애 LE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한중희 사장이 '삼성 퍼스트 룩 2018' 행사장에서 마이크로LED 기술기반으로 만든 146형 세계최초 모듈러 TV '더 월'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D 자체가 광원이 되는 '자발광 TV'다. 모듈러 방식으로 소비자는 기호에 따라 테두리(베젤)를 완전히 없애고 스크린 사이즈와 형태를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다. 화질뿐만 아니라 발광효율·광원수명·소비전력 등 내구성·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 사장은 행사 후 이어진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더 월에 대해 "TV 컬러필터는 화질 재생에 제한적 요소가 많다. 하지만 그걸 없애려면 자발광이 필수"라며 "롯데시네마에서 선보이

고 있는 (시네마LED의) 극장 화질을 TV로 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연내 상용화해 일반에도 판매할 계획이다. 높은 가격을 예상하는 기자들과 달리 한 사장은 양산이 본격화되면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웨이퍼의 인치가 높아질수록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며 "같은 웨이퍼 안에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격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로LED 방식은

오히려 작은 크기의 화면 구현이 더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향후 시네마LED처럼 더 큰 화면을 만드는데 마이크로LED 기술을 활용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을 적용해 저해상도 콘텐츠를 8K 수준 고화질로 변환해 주는 2018년형 8K QLED TV 85형도 선보였다. 이 제품은 TV가 '인공지능(AI) 고화질 변환 기술'로 저해도 영상을 밝기·블랙·번짐 등을 보정해 고화질 영상으로 변환해준다. TV 시장이 급속히 대형화되는 반면 UHD급 콘텐츠 시장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원본 화질에 상관없이 2018년형 8K QLED TV로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데이브 다스 상무는 "삼성전자의 AI 고화질 변환 기술로 소비자들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 TV 등에 관계 없이 저해상도의 영상도 고화질로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18년 QLED TV에 대해 그는 "지난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삼성 디바이스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서 생활 편리성을 높였다는 것"이라며 "삼성 IoT 서비스용 클라우드를 '스마트싱스'로 통합해 연결성을 확대하고 연결된 IoT 기기들을 스마트싱스 앱 하나로 간단하게 연동·제어할 수 있도록 해 오는 3월 런칭에 맞춰 파워풀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사장은 "삼성전자는 앞으로 TV 시장을 QLED와 마이크로LED를 두 트랙으로 가져갈 것"이라며 "LCD TV의 경우 사이즈를 키우는 게 비용이나 생산수율 등에서 한계가 있지만 마이크로LED TV는 모듈러를 통해 이어 붙이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 “가상통화거래소 서비스 중단도 검토”

최종구 금융위장 투기 경고 가상화폐제공 6곳 현장 점검 은행 불법유통 방지역할 못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식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경고를 울렸다. 가격 급등세는 물론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가상통화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와 규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지난달 13일과 28일에 특별대책, 긴급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가상통화 가격은 오히려 급등하면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날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기업

·신한·국민·우리·산업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은행들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 효과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에 대한 비판에도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22일부터 시스템이 마련된 은행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92만500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시각 세계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홍콩 비트파이넥스에서는 1만 5871달러(원화 1692만원)를 기록했다. 국내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노노갈등으로 번지는 파리바게뜨 사태 해피파트너즈 노조 “자회사 전환 반대”

(가맹본부-점주-협력사 합작사)



파리바게뜨 매장 /SPC그룹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권고로 촉발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노사 갈등에서 노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정한 '해피파트너즈' 노조 전진욱 수석부위원장은 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3자 합작법인을 본사 자회사로 바꾸기 위해 지분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계열은 4500명의 제조기자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없애고 다시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계열은 본사가 지분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지분 구조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계열 노조와는 별개의 노조다. 현재 조합원 수가 700명을 넘어섰으며 조합원 대부분은 고용부의 본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이다.

앞서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한 과태료 납부 시한을 앞두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시한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안을 놓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노총 계열 노조는 직접고용을 고수했지만 한국노총은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차선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은 합작법인을 자회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직접고용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본사의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전 수석부위원장은 "(가맹본부) 회사에 몸담고 있는 제조기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들었어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행태를 보면 다수의 제조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의가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점포를 운영해야 제조기사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더군다나 양대노총 요구대로 협력업체들이 배제된다면 제조기사 외에 다른 근로자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누가 책임지냐"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박인용 기자 parkiu7854@